

#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표현된 패러디 표현기법을 응용한 벨트 디자인 개발 연구

## A Study on the Belt Design applying Postmodernism Parody Expression Techniques

김혜경\* · 김보람\*

Kim, Hye Kyung\* · Kim, Bo Ram\*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과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패션 디자인 석사\*

Prof.,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Dongduk Women's Univ.\*

### Abstract

Industrial society of today is rapidly changing. Hence, values and personalities of the people are being apparent. And, the fashion in the society of today is tending toward valuing personality and diversity of each, distinction than standardized beauty in the past.

New attempts unbound to style or matter, color, coordination etc. of the past are being done at the recent fashion. This could be seen as the good reflection of the want of the modern people today. Since the impression changes as how and where the accent is given according to situation and intention as face, figure, character, impression of each person with the same dress varies, modern people take much interest in the accessory. Of those, the role of the belt, not just practical purpose or part of fashion, is growing as the important accessory showing the fashion trend and perfecting fashion.

Accordingly, the study, reflecting the want of modern people valuing individual personality and diversity, distinction according to the rapid change of the industrial society of today, will play the part in the fashion coordination not just the practical use but as the original accessory through the creative belt design. Various figures of the belt will be embossed by applying the parody expression technique based on function of fastening of the belt, and the aim is to present the new fashion trend through the belt design applying the parody expression technique.

Key Words : belt, parody, postmodernism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현대 산업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전문화되고 다양한 직업과 사회 활동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는 물론이고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의생활에 따른 합리적이면서도 개성적인 자기만의 표현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패션에서도 과거의 스타일이나 소재, 컬러, 코디네이션 등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같은 옷차림이라도 사람마다 얼굴, 체형, 품성, 느낌이 제각각 다르듯이 상황과 의도에 맞게 어떻게, 어디에 액센트를 주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액세서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 중 벨트는 실용적 목적이거나 패션의 일부분에서 벗어나 패션 트렌드를 전달하고 패션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액세서리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 차별성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창의적 벨트 디자인을 통해 실용적 목적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액세서리로서 패션코디의 일익을 담당한다. 이에 벨트의 묶는다는 기능성을 바탕으로 패러디 표현기법을 응용하여 다양한 벨트의 조형성을 부각시키고, 패러디 표현기법을 응용한 벨트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제시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현대산업사회의 발달과 변화와 함께 현대인들은 개성과 자아표현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옷차림에서도 액세서리의 포인트로 느낌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 중 벨트는 실용적 목적 뿐 아니라 패션의 일부분에서 벗어나 패션 트렌드까지 전달하는 중요한 액세서리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렇게 중요한 액세서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벨트에 대해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벨트의 의미와 기원, 종류와 기능에 대해 고찰하고, 포스트모더니즘 패션과 패러디의 개념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표현된 패러디기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에 따른 기법들을 응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작되지 않았던 벨트를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최근의 국·내외 문헌과 선행 학위논문, 학회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패션잡지, 인터넷, 시장 조사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얻어지는 이론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응용하여 실용적 목적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액세서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벨트 디자인 개발을 제시한다.

## II. 벨트의 이론적 고찰

### 1. 벨트의 정의와 기원

#### 1) 벨트의 정의

벨트란 옷 위로 허리를 중심으로 가슴둘레나 엉덩이 둘레 사이를 한정하여 둘러 묶는 끈의 총칭으로 대(帶) 또는 띠라고 하며<sup>1)</sup>, 영어의 새시(sash), 웨이스트 밴드(waist band), 거들(girdle)로 표현되는 복식의 부속품이다. 벨트의 어원은 라틴어의 발테우스(balteus)이며<sup>2)</sup>, 현대에서는 주로 납작한 끈의 형태로서 의복을 신체에 고정시키거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장신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벨트는 복식의 가장 원시적 형태로 의복을 입어 몸에 고정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벨트의 역사는 의복과 함께 시작하게 된다. 벨트의 발생 초기에는 단순한 형태로 완전한 하나의 의복의 역할을 했으며, 도구를 달고 다니는 실용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의복을 고정시켜서 활동성을 부여하기 위한 실용적인 의미와 신체의 건강 보호 등의 주술적 의미에서 사회가 발달되면서 신분과 계급을 상징하는 의미, 그 후 점차 복식의 부속품으로 되면서 의복을 정리하거나 무기를 매달기 위한 기능성과 장식성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 2) 벨트의 기원

벨트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나타나는 넓은 의미의 띠의 총칭으로 어느 지역에서부터 착용되기 시작하였는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단순한 형태의 끈으로서 의복의 초기 형태로 나타난 벨트는 여러 지역의 선사시대의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복식은 단순한 고리모양의 물체를 허리, 목, 팔목, 발목 등 신체의 조여진 부위에 감거나 걸어두는 것이었다. 여기에다 늘어뜨려지는 물체를 부가시킴으로서 점차 신체를 가리는 면적이 증대되었고, 나아가 입체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sup>3)</sup>.

1) 손희정(2003),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벨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

2) 발테우스(balteus): 고대 로마인이 성장시에 사용했던 거들, 또는 벨트. 성직자용의 거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원래는 이오니아식 기둥머리 양측의 소용돌이형을 연결하는 수평의 띠부분을 말한다.(출처: 삼성디자인넷)

3) 황춘섭(1986), 민족의상, 서울: 수학사, p.24-25.

선사시대의 의복 유물 중 체코 모라비아 동굴에서 출토된 ‘베스토니체의 비너스’라고 일컬어지는 여자상에 나타나 있는 홈<그림 1>이 벨트의 시초로 여겨진다<sup>4)</sup>. 복식의 가장 원시적인 형인 유의(紐衣)<그림 2>는 신체의 좁고 가는 부위인 목, 무릎, 손목, 팔꿈치, 발꿈치, 허리 등을 묶어 착용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목걸이, 팔찌 등의 기원이 되며, 허리에 묶었던 유의는 벨트의 기원이 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도 이미 부족국가시대부터 의복에 대(帶)를 사용하고 있다. 벨트는 이렇게 어떤 문화권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형태, 위치, 소재, 색상, 문양 등에서 각각의 특색을 보인다.

### (1) 고대의 벨트

고대의 벨트는 도구와 식량을 달고 다니는 기능적인 용도로 주로 사용되어졌다. 이 기능은 이집트, 크레타, 그리스, 로마 등 고대국가의 벨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고대의 벨트는 권력이나 계급을 상징하거나 단순한 장식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졌고 주술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

### (2) 중세의 벨트

중세에는 벨트가 주요한 장식품으로 쓰였다. 남녀가 다 튜닉 위에 착용하였는데 한 줄로 된 것, 여러 가지 재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것 등이 있었다. 여자의 벨트는 브로케이드(brocade)<sup>5)</sup>, 벨벳(velvet) 등 직물로 만들기도 하여 보통 허리선 아래(low waist)에 들렀다<sup>6)</sup>.

### (3) 근세의 벨트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남자 복식은 상의의 길이가 대체로 짧아지고 하의는 몸에 꼭 끼게 입었다. 허리 또는 힙에 꼭 끼는 벨트를 착용하여 허리를 가늘게 나타내고 어깨를 넓게 강조함으로써 남성미를 과시하였고 검을 매단 것이 많았다. 벨트의 재료로는 귀족들은 금, 은, 벨벳, 비단이 사용되었고 벨벳과 비단에는 여러 가지 색의 비단실로 수를 놓았으며 진주 등 보석과 금·은박 등으로 장식하였다<sup>7)</sup>.<그림 3> 르네상스 초기에는 여자복 우벨랑드의 풍성하고 길이가 긴 옷의 가슴 밑으로 벨트를 꼭 조이게 매어서 주름이 의복 전체에 나타나게 하였다.

4) 서동륜(1980), “벨트에 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

5) 브로케이드(brocade): 라틴어의 ‘brocare(무늬로 장식한다)’에서 연유한 말이다. 본래는 위이중직(緯二重織) 조직으로서, 몇 가지의 색실과 금실·은실을 사용한 호화롭고 두꺼운 견직물이나, 오늘날에는 외견의 자카드문직이 많고, 섬유도 견과 유사한 각종 섬유가 사용되고 있다. (출처: 삼성디자인넷)

6) 김기업(1985), “고딕시대의 남녀복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1-82.

7) 서동륜, 앞의 책, p.26.

벨트는 값이 비싼 흑색실과 금색실로 짠으며 폭이 넓고 길이가 길며 뒤에서 버클에 허리에 맞게 조여졌으며 나머지는 뒤에 길게 늘어뜨렸다.

(4) 근대의 벨트

엠파이어 스타일시대인 19세기 중엽에 근대화를 끝낸 남성들은 벨트를 실용적으로 사용하여 의복을 특별하게 장식하지 않았으며, 스포츠용이나 코트, 군복에만 벨트를 사용하였고 바지에 붙은 벨트로 만들어졌다. 여자복식에서는 여러 가지 패션 스타일이 나타났다. 엠파이어 스타일의 특징은 하이 웨이스트로 가슴을 강조하였으며 가는 벨트나 옷과 같은 옷감으로 된 벨트를 가슴 아래로 매어 장식하였다.

(5) 현대의 벨트

현대 복식에서 남성복의 벨트는 코트와 같은 특수복에는 장식적으로 사용하였고 바지에는 허리에서 고정시키는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가죽이나 옷과 같은 직물로 된 벨트는 여러 가지형의 버클로 개성을 나타내었다.

1920년대 여성들은 로우 웨이스트에 벨트를 느슨하고 여유 있게 장식적으로 하였으며 벨트는 앞 중앙에서 버클로 연결하였다.<그림 4> 1960년대는 미니스커트의 유행으로 상의는 길어져서 그 위에 금속제 체인벨트나 합성물질의 벨트, 가죽 벨트 등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1980년대는 자연주의의 영향으로 벨트도 에콜로지를 표현하는 소재와 형태로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최근까지 사회와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벨트 또한 여러 가지 스타일과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과거 스타일의 재해석과 함께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여 과거와 미래, 현재가 공존하는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기도 함으로서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다.



<그림 1> 베스투니체의 비너스



<그림 2> 뉴의를 입고 있는 여자



<그림 3> 검 벨트를 착용한 Henry 2세(1550년)



<그림 4> 버클로 장식한 벨트로 허리 강조

## 2. 벨트의 종류와 기능

### 1) 벨트의 종류

#### (1) 폭에 의한 종류

벨트의 폭에 의한 종류로는 폭이 좁은 내로우 벨트(narrow belt)와<그림 5> 폭이 넓은 브로드 벨트(broad belt)가 있다. 벨트는 허리 이외의 부위에 착용했을 때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는데, 허리보다 낮은 위치에 걸치듯 착용하는 로 슬링 벨트(low slung belt)와<그림 6> 힙본 벨트(hipbone belt)가 있고, 어깨에서 비스듬히 멜빵처럼 착용하는 홀터 벨트(halter belt), 주로 코트나 재킷의 뒤쪽에 장식의 목적으로 부착하는 백 벨트(back belt)가<그림 7>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두 개의 벨트를 함께 착용하거나 폭 넓은 벨트에 가는 벨트를 덧붙여 매는 더블 벨트(double belt)가<그림 8> 있고, 네모진 모양이나 원형의 커다란 신치 버클이 달린 폭이 넓고 튼튼한 벨트 형태의 신치 벨트(cinch belt)가 있다.



<그림 5> 내로우 벨트



<그림 6> 로슬링벨트



<그림 7> 백벨트



<그림 8> 더블벨트

#### (2) 소재에 의한 종류

벨트의 소재에 의한 종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죽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스트로(straw), 우븐(Woven), 체인(chain), 메탈(metal) 등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직물을 이용한 벨트 가운데 매치 벨트(match belt)<그림 9>는 의상과 같은 소재의 직물로 함께 만들어진 벨트이다. 그리고 하프 벨트(half belt)<그림 10>는 대개 의상과 같은 천으로 만들며 스포츠 재킷이나 코트에 많이 쓰인다, 또 새시 벨트(sash belt)<그림 11>는 부드러운 천을 주름잡아 두르는 것으로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장식적 벨트이다. 새시 벨트 중에서 폭이 넓고 꼭 맞는 회교계 남자용 띠(kamarband)에서 유래한 커머번드(cummerbund)<그림 12>는 주로 남자 턱시도에서 쓰인다. 요즘에는 스카프나 남성용 넥타이를 벨트로 사용하는 스카프 벨트(scarf belt)가 패션 코디네이션에서 많이 나타난다.

또한 메탈류로 만든 벨트 가운데, 파스멘트리 코오드(passementaire cord)는 금·은사와 보석으로 짠 끈을 말하는데, 끝을 풀어 다발로 매어 술 장식이 되는 것은 매우 장식적이어서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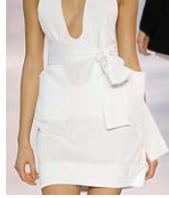
의상에 많이 사용된다<sup>8)</sup>. 체인 벨트(chain brlt)<그림 13>는 링 벨트(ring belt)라고도 하며, 금속으로 된 사슬고리 벨트로, 주로 허리에 늘어뜨려 장식적인 역할을 한다.



<그림 9> 매치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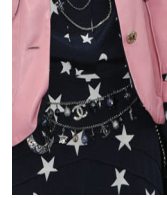
<그림 10> 하프벨트



<그림 11> 새시벨트



<그림 12> 커머밴드



<그림 13> 체인벨트

### (3) 모양에 의한 종류

벨트의 모양에 따라서는 오른쪽 어깨에서 좁다란 가죽 띠를 내려뜨린 폭이 넓은 가죽 허리 띠를 샘 브라운 벨트(Sam Brown belt)<그림 14>라고 한다. 또한 구멍이 뚫린 가죽을 사용한 펀칭 벨트(punching belt)<그림 15>가 있고, 허리를 가늘게 보이기 위한 폭이 넓은 벨트로 앞 중앙을 끈으로 조이게 한 코르셋 벨트(corselet belt)<그림 16>가 있다. 그 외에도 벨트에 꿰어서 액센트로 이용하는 작은 가방이 달린 파우치 벨트(pouched belt)<그림 17>, 신체의 선을 따라 곡선으로 만들어진 콘투어 벨트(contour belt)가 있다<sup>9)</sup>.



<그림 14> 샘 브라운 벨트



<그림 15> 펀칭벨트



<그림 16> 코르셋벨트



<그림 17> 파우치벨트

## 2) 벨트의 기능

### (1) 기구적 기능

기구적 기능은 의복이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갖는 기능을 말하며, 주로 보호적 목적과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된다. 즉, 기구적 기능은 신체를 보호하고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신체적 쾌감을 증진시키는 물리적 기능으로 자연환경으로부터의 신체보호와 기능

8) 김소영(1998), “의상디자인에 활용된 벨트연구-1990년대 여성복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9) 이경순, 김희섭(1998), 의생활과 패션코디네이션, 교문사, p.198.

성을 의미한다. 신체보호 목적의 예로 추위를 피하고자 모피나 가죽 등을 몸에 두른 후 허리를 끈으로 매어 입음으로서 체온을 유지시키는 것이 있다. 실용적 목적의 예로는 의복을 움직이기 편하게 고정시키는 것과 필요한 휴대품을 달고 다니는 등의 운반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

## (2) 표현적 기능

벨트를 통해 나타나는 표현적 기능은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한 장식적 목적과 신분과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 목적으로 나타난다. 장식적 목적은 실용성이 강조되었던 고대에서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가 추구하는 미의식에 맞추어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용적인 목적에 의해서 생겨난 벨트는 역사를 통하여 점차 장식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변화하였고, 장식적인 것이 다시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즉 각 문화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벨트의 사용 목적이 변화하여 나타나고 있다.

# III. 포스트모더니즘과 패러디 연구

## 1. 포스트모더니즘과 패러디의 이론적 연구

### 1)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과 배경

포스트모더니즘은 ‘포스트(post)’와 모더니즘(modernism)<sup>10)</sup>이라는 용어의 결합으로 여기서 포스트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이후’라는 뜻과 ‘벗어남’, ‘초월’이라는 뜻이 있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이란 탈근대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더니즘 이후에 나타난 비판 현상을 말한다<sup>10)</sup>.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생은 두 차례의 역사적 대전(大戰)과 서구세계의 정신적 위기감으로 인해 현대인이 현대 산물을 재평가함으로써 나타나는 불안감에서 기인되며, 이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목표를 인식함으로써 생겨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전위적 운동의 전개와 실험적 의도를 지나치게 추구한 결과 새로운 장르의 시도가 많아지고 전통적인 장르의 혼합 및 붕괴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예술의 움직임으로 구상계열의 모더니즘과는 대비되는 21세기의 새로운 모더니즘으로 인정되기도 한다<sup>11)</sup>.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화 영역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동시에 각각의 예술에서 서로 다른 형태와 양상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즉 효력을 상실한 기존의 가치 체계

10) 김혜경(2007), 패션트렌드와 이미지, 교문사, p.148.

11) 서성록(1989), 포스트모던 미술과 비평. 미술공론사. p.5



에서 탈출구로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한 사상적·문화적 현상을 지칭하려는 용어일 뿐 종전의 ‘-ism’의 개념처럼 어떤 특정한 유파나 체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와 표현의 양상도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영역 간에 동일한 위상에서의 논의는 오류를 범하는 행위일 것이다.

## 2) 패러디의 개념과 배경

패러디는 논자에 따라 하나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를 ‘조롱하거나 희화화’시킨다는 좁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패러디의 어원으로 알려진 희랍어 ‘prodia’는 ‘para+odia’가 결합한 것으로 ‘대응노래 counter-Song’라는 뜻이다<sup>12)</sup>.

한편, 패러디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여러 사전들의 정의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패러디의 의미를 산문이나 운문에서 한 작가 혹은 한 부류의 작가들을 우습게 보이려는 방식으로서, 원작에 다소 밀접하게 근거를 두고 모방하는 것이지만 모방하는 사고나 구절의 전환을 통해 우스꽝스런 효과를 산출하는 양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패러디는 대체로 한 작가, 특정 양식의 형식적 문체적 특성을 과장하거나 부적절한 주제에 적용시키는 두 가지 형태를 따른다.

그러나 패러디의 사전적 정의는 주로 협의의 패러디 정의를 설명하고 있어서 패러디의 단면만을 보여주고 있다. 협의의 패러디는 특정한 작품의 풍자적 모방이라는 트래비스티(travesty)나 벌레스크(burlesque)와 유사한 형식으로 한정될 수 있으며 광의의 패러디는 다양성, 상호텍스성(intertextuality)<sup>13)</sup>, 메타픽션(meta fiction)<sup>14)</sup>, 혼성모방(pastiche)등과 함께 지극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 2.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표현된 패러디기법

현대 패션에서 패러디를 통한 창조기법은 원텍스트의 부분변형으로서 상호텍스트를 패러디로 주장한 쥘레뜨(G. Genette)의 견해와 원 텍스트를 종합적 구조적 변형으로서 초맥락화를 패러디로 정의하는 린다 허첸(L. Hutchen)의 대조되는 두 견해로서 구분될 수 있다<sup>15)</sup>.

12) 고현진(1994), “현대패션에 나타난 패러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13) 상호텍스성: 텍스트들이 인용, 모방 등에 의해 서로 뒤섞여 있는 상태. 텍스트간의 상호연관성

14) 메타픽션: 예술작품의 이중 혹은 다중성격

15) 진경옥(2001). “패러디를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의 조형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89.

1) 부분변형을 이용한 상호텍스트기법

(1) 과장

과장은 크기의 확대나 축소, 길이의 신장이나 단축, 면의 확장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고유 비례관계가 깨짐으로 해서 특이한 표정이나 강조된 형태를 갖게 된다. <그림 18>에서는 기능성만 강조한 벨트와는 달리 크기의 과장으로서 포인트를 주는 장식성을 나타내고 있다. 과장에 의한 패션의 독창적 표현은 기존 정통적 패션을 토대로 크거나 작게 변형하여 착용자의 신체에 비정통적인 의외성을 부과하여 관심을 유발하는 패러디기법이다<sup>16)</sup>.

(2) 반복

패러디를 응용한 패션에서 나타나는 반복은 이질감보다는 유사성을 강조하거나 이중이미지의 중합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패러디의 반복 효과는 일차적인 표현효과와 이차적으로 함축된 것이 동시에 작용한다<sup>17)</sup>. 예로는 옅아트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흑과 백만으로 구성되나 그것을 기하학적으로 변형시켜 반복하는 수법을 이용한다. <그림 19>을 보면 단추를 반복적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벨트를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3) 풀라주

풀라주 기법은 일상의 습관적인 의미의 범주에서 떼어내 오브제 자체로서 제시하거나 다른 요소들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구성하여 현실 원칙에서 해방되고 우연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별히 위선을 폭로하는데 적합한 기법이다. <그림 20>에서 보면 옷핀과 다른 오브제를 결합하여 새로운 벨트를 제시하고 있다.

(4) 은유

창조적 원천으로서의 은유기법은 지각과 사유의 대상과 일반 대상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그것들을 창조적으로 상호작용하게 하는 패러디 기능으로서, 무의식적인 경험을 현실과 결합시키는 의미있는 창의적 디자인을 가능케하는 요소가 된다. <그림 21>에서 나타난 벨트는 코르셋을 연상시키는 벨트로서 표현하고 있다.

(5) 혼합

양식이나 장르를 엄격히 구분하는 미적 범주를 무시하고 모든 매체와 양식들을 혼합하는

---

16) 위의 책, p.89.

17) 위의 책, p.90.

기법은 현대 패션디자인 영역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기법이다. <그림 22>에서와 같이 벨트, 옷, 조형물의 경계없이 재미있는 벨트를 제시하고 있다.

혼합기법을 이용한 패션디자인은 희극적 양상을 보여줌으로서, 현대인의 심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변해가는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인간본능을 표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림 18> Fendi  
07 F/W



<그림 19> Jean Paul  
Gaultier 03 S/S



<그림 20> Jean  
Paul Gaultier 02 F/W



<그림 21> Dolce &  
Gabbana 07 F/W



<그림 22> Christian  
Dior 02 F/W

## 2) 구조적변형을 이용한 초맥락화기법

### (1) 해체

의복의 기본구조에 있어서 해체방법은 내부로부터의 해체와 외부로부터의 파괴로 나눌 수 있다. 내부로부터의 해체는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고방식이 불완전하여 전도될 수 있다는 전략이며, 외부로부터의 파괴는 의복의 물리적 형태를 파괴하여 각 요소들 스스로의 모순적 경향을 극도로 표출시켜 반 전통적 새로움의 심미성을 표출하는 것이다. 패션에 있어서 의복의 구조적 해체는 모더니즘에 의해서 지금까지 정해진 디자인 원리와 요소에 의해 억압되었던 것을 효과적으로 해방시킨다. <그림 23>에서는 기존 벨트의 개념과 달리 자켓과 같은 원단으로 옷과 벨트의 경계를 해체시키고 있다.

### (2) 왜곡과 변형

왜곡이란 말의 뜻은 규칙적이고 기하학적인 조화에서 벗어남을 말할 수도 있고, 좀더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주어져있는 비례에 대한 무시를 말할 수도 있다. 왜곡은 올바른 형태로부터 변화된 것을 통해, 효과적인 체어를 모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복의 균형은 선, 색채, 재질의 디자인 요소들이 갖는 양(volume)과 힘(impact)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좌우의 디자인 요소가 시각적으로 같은 무게를 느끼게 할 때 균형을 이루게 된다<sup>18)</sup>. <그림 24>에서 보면 벨트의 버클을 서로 마주보게 디자인하여 기존 벨트의 모양을 변형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 이은영(1990),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p. 143.

왜곡된 디자인은 아무렇게나 형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화면상의 필요성, 작가의 의도나 목적하에 고도로 계산되어 제시된다.

### (3) 전위와 변용

구조적 변형으로 초맥락화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법으로는 전위와 변용을 들 수 있다. 구성요소들을 전혀 엉뚱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신체부위를 전환시키고, 복식 품목을 이동시켜서 기존복식의 전통을 거부하고 복식의 논리를 의도적으로 패러디함으로써 새로운 패션을 제안하는 기법으로서 크게 위치의 전환과 기능의 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5>을 보면 속옷이었던 코르셋을 겉옷화 시킴으로써 새로운 벨트의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전위와 변용을 이용한 패러디 기법은 착장 방식에 대해 물음을 제기하는 아이러니를 통하여 주위를 환기시킴으로써, 새로운 착장 방식에 필요한 패션창조의 영역을 확장 할 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불합리한 이면을 내포하는 풍자적인 의미를 함축하기도 한다<sup>19)</sup>.

### (4) 부조화

현대 패션은 개성적이고, 기괴한 것, 흥미로운 것, 희극적인 것이 패션의 매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일정한 양식에서 벗어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의 형태와 이미지가 결합된 부조화는 현대 패션에 신선감과 극적인 느낌으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그림 26>에서는 기존 벨트와 다른 메탈의 딱딱한 조형적인 느낌의 벨트로 열쇠와 연결함으로써 부조화적이면서 개성적인 벨트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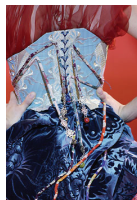
부조화의 공존은 생존 구조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삶과 함께 패션 속에서 그 존재 가치를 가지며 예술의 정신과 그 표현 방식에 새로운 형태 창조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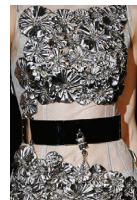
<그림 23> Yohji Yamamoto 06 S/S



<그림 24> Gucci 07 F/W



<그림 25> Christian Lacroix 02 F/W



<그림 26> Dolce & Gabbana 07 F/W




19) 진경옥, 앞의 책, p. 100.





## IV. 작품 제작

###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현대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전문화 되면서 현대인들의 감성과 기호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창의적이고 다양한 개성을 추구하는 현대 패션의 추세에 복식은 물론, 액세서리 까지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근거로 하여 포스트모더니즘 현상 중에서 패러디 현상을 중점적으로 다양한 표현기법을 응용하여 실용적, 기능적 목적 뿐 아니라 패션의 일부분에서 벗어나 조형미와 패션 트렌드까지 전달하는 중요한 액세서리인 벨트를 여러 가지 패러디 표현기법을 응용한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제시하게 되었다.

### 2. 작품 및 해설

1) 작품1	2) 작품2	3) 작품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양: 홀터 벨트</li> <li>• 소재: 세틴</li> <li>• 컬러: 화이트</li> <li>• 작품해설: 해체기법을 응용. 테일러드 자켓의 칼라부분만을 응용, 칼라부분을 연장하여 뒤에서 버클로 잠그는 벨트를 제작하였다. 칼라부분에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링체인을 반복적으로 트리밍하여 좀 더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li> </ul>  <p>&lt;작품1의 사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양: 홀터 벨트, 브로드 벨트, 로슬링 벨트</li> <li>• 소재: 양가죽, 소가죽, 장식 단추</li> <li>• 컬러: 크림 아이보리, 브라운</li> <li>• 작품해설: 해체기법을 사용. 셔츠의 칼라와 앞 단추부분을 떼어내어 벨트와 연결시킴으로서 멀리서 보았을때 셔츠를 입지 않고도 셔츠를 입은듯한 착시를 일으키는 재미있는 벨트 디자인을 하였다. 셔츠 칼라 부분을 단추로 잠글 수 있고, 허리벨트와는 스냅단추로 연결하여 탈부착이 가능하다.</li> </ul>  <p>&lt;작품2의 사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양: 펀칭벨트, 샘 브라운 벨트</li> <li>• 소재: 가죽, O링, 금속 부자재</li> <li>• 컬러: 블랙, 다크 실버</li> <li>• 작품해설: 반복기법 사용. 가죽 테잎에 펀칭을 하고, 펀칭한 구멍에 O링에 동그란 모양의 금속 부자재를 반복 장식하여 디자인을 하였다. 어깨에 걸치는 벨팅 부분에는 스냅단추를 달아 기능적, 장식적인 연출을 할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li> </ul>  <p>&lt;작품3의 사진&gt;</p>

4) 작품4	5) 작품5	6) 작품6	7) 작품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양: 코르셋 벨트</li> <li>•소재: 소가죽</li> <li>•컬러: 브라운</li> <li>•작품해설: 전위와 변용사용. 코르셋을 응용, 소가죽으로 허리부분만을 감싸는 벨트디자인을 하였다. 얇은 가죽 띠로 치수 조절가능과 함께 포인트를 주었다.</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p data-bbox="229 846 394 875">&lt;작품4의 사진&gt;</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양: 파우치 벨트, 로슬링 벨트</li> <li>•소재: 소가죽, 옥스퍼드</li> <li>•컬러: 다크브라운, 화이트</li> <li>•작품해설: 은유기법 사용. 가죽 벨트에 권총 모양 프린트의 포켓을 달아 재미있는 벨트를 제작하였다. 벨트 끝부분에 스냅단추를 여러 개 달아 잠그는 기능성과 포인트를 주는 장식성을 고려한 벨트를 제작하였다.</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p data-bbox="491 999 655 1028">&lt;작품5의 사진&gt;</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양: 로슬링 벨트, 새시 벨트</li> <li>•소재: 세틴, 양가죽, 실크, 자개, 체인</li> <li>•컬러: 블랙, 화이트, 그레이</li> <li>•작품해설: 플라주와 반복기법 사용. 조형물에서 모티브를 얻어 골반에 할 수 있는 약간 넓은 형의 벨트를 제작하였다. 체인과 자개를 연결하여 찰랑거리는 유희성도 있는 벨트이다.</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p data-bbox="756 1039 920 1068">&lt;작품6의 사진&gt;</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양: 브로드 벨트</li> <li>•소재: 소가죽, 양가죽, 자물쇠, 열쇠, 체인</li> <li>•컬러: 화이트, 블랙, 실버</li> <li>•작품해설: 은유 기법 사용. 자물쇠에서 디자인을 착안, 자물쇠의 실루엣을 응용하여 디자인을 하고, 실제 자물쇠와 열쇠로 장식을 하고 체인으로 화려하게 포인트를 주었다.</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p data-bbox="1018 999 1182 1028">&lt;작품7의 사진&gt;</p> </div>

## V. 결론 및 제언

현대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전문화되고 다양한 직업과 사회 활동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는 물론이고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의생활에 따른 합리적이면서도 개성적인 자기만의 표현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패션에서도 과거의 스타일이나 소재, 컬러, 코디네이션 등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소비자들도 자신만의 개성표출 욕구가 커지면서 패션의식 또한 성숙되어가고 있다. 같은 옷차림이라도 사람마다 얼굴, 체형, 품성, 느낌이 제각각 다르듯이 생활과 의도에 맞게 어떻게, 어디에 액센트를 주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액세서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 중 벨트는 실용적 목적이나 패션의 일부분에서 벗어나 패션 트렌드를 전달하고 패션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액세서리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벨트는 의복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초기에는 단순한 형태로 완전한 하나의

의복의 역할을 했으며, 도구를 달고 다니는 실용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신체의 건강 보호 등의 주술적 의미와 사회가 발달되면서 신분과 계급을 상징하는 의미, 그 후 복식의 부속품으로 되면서 의복을 정리하거나 무기를 매달기 위한 기능성과 장식성을 지니게 되었다.

최근 문화 전반에 팽배되어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페러디현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응용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벨트 디자인을 제시하고 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로는 첫째, 현대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 차별성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창의적 벨트 디자인을 통해 실용적 목적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액세서리로서 패션코디의 일익을 담당하는 벨트를 제시하였다. 둘째, 벨트의 묶는다는 기능성을 바탕으로 페러디 기법을 응용하여 다양한 벨트의 조형성이 부각되고, 페러디 기법을 응용한 벨트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제시함으로써 기능성만을 나타내던 벨트에서 장식성과 조형성이 부각되는 벨트 디자인을 통해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액세서리가 되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현진(1994), “현대패션에 나타난 페러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권현주(1999), “우리나라와 서양복식에 나타난 계급표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엽(1985), “고딕시대의 남녀복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영(1998), “의상디자인에 활용된 벨트연구-1990년대 여성복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2007), 패션트렌드와 이미지, 교문사.
- 서동륜(1980), “벨트에 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성록(1989), 포스트모던 미술과 비평. 미술공론사.
- 손희정(2003),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벨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순, 김희섭(1998), 의생활과 패션코디네이션, 교문사.
- 이은영, 복식의장학(1990), 서울: 교문사.
- 정현남(2005), “1990년 이후 패션에 나타난 에스닉 이미지 벨트의 디자인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경옥(2001), “페러디를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의 조형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춘섭(1986), 민족의상, 서울: 수학사.